

데카르트의 ‘꿈의 논증’과 ‘정합성’을 기반으로 한 그 탈출시도에 관하여

윤지섭
(서울대 정치학과)

I. 들어가며

너무나도 생생한, 그래서 깨고 난 뒤에 실제로 심장이 빨라졌거나 땀을 흘렸던 꿈의 경험은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때로는 꿈속의 일이 마치 실제 겪은 일처럼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장자의 호접지몽에서는 내가 나비인 것이 꿈인지 사람인 것이 꿈인지가 혼동되기도 한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꿈속에서 우리의 감각은 우리에게 사실만을 전달해 주기보다 거짓을 전달해주는 듯하다. 데카르트는 꿈의 이런 특성에서 착상을 얻어 ‘꿈의 논증’을 제시했다. 이는 확고 불변한 최초의 토대를 찾아 새로운 체계를 세우고자 한 『성찰』에서 감각경험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논증으로 사용된다.

이 글에서는 ‘꿈의 논증’의 내용을 살펴보고, 논증의 결과 무너진 감각경험의 원리를 데카르트가 어떻게 재정립하는지, 또 얼마나 잘 재정립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논증의 내용 분석에 있어서는 논증에서 의심의 대상이 되는 믿음들 및 논증결과 살아남은 믿음들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후 데카르트가 ‘꿈의 논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근거로서 제6성찰에서 제시한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 해결책인지 검토하고 나름대로의 평가를 내려 보고자 한다. 기본 분석 문헌은 데카르트의 『성찰』(이현복 역, 서울 : 문예출판사, 1997)로 한다.

II. 꿈의 논증

데카르트의 ‘꿈의 논증’은, 학문에 있어 확고하고 불변하는 것을 세우기 위해 원리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논증이다. 여기서 ‘원리’라 함은 감각경험, 직관 등 우리의 의견이 의존하는 원리를 일컫는다. 데카르트는 확고 불변하는 진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전복시켜 최초의 토대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때 그는 단순히 거짓임이 드러난 의견들만을 전복시키는 것이 아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할 만한 의견이라면 그 의견들 전체를 의심하고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를 의심한다고 할 때, 그 의견집합 내의 개별 의견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는 것보다, 그 의견집합이 의존하고 있는 원리들 자체를 검토함으로써 토대를 무너뜨리자는 것이 데카르트의 입장이다.

데카르트 ‘꿈의 논증’에서 의심의 대상이 되는 믿음은 감각적 의견의 진리성, 즉 감각경험에 근거한 믿음이다. 이는 그의 회의 전체에서 첫 번째로 의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가 감각경험이라는 원리부터 의심하기 시작하는 이유는, ‘참된 것으로 간주해 온 것은 모두 감각으로부터 혹은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일상적인 의견들은 대부분 감각경험에 기초하며 우리는 그러한 의견들을 참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어떠한 사실 여부를 놓고 논쟁을 하다가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봤어?” “응. 봤어.”라고 하는 경우를 떠올려보자. 대부분의 경우 ‘내가 보았다’는 것은 매우 강력한 논거로 작용한다. 이처럼 감각경험에 의한 믿음은 우리의 믿음체계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이것에서부터 의심을 시작하는데, 감각은 종종 우리를 기만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 때 대상이 되는 감각적 의견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꿈의 논증’의 대상은 엄밀히 말해 두 번째 종류에 해당한다. 우선 첫 번째 의견은 “아주 작은 것과 멀리 떨어진 것[18]”에 대한 의견이다. 이는 외부대상에 대한, 주로 시·청·후각에 의해 생기는 의견이다.1) 예를 들면, 비행기 위에서 보는 자동차의 모습은 작은 점으로

나타나지만, 착륙 후 가까이에서 보는 모습은 그와 다르다. 또는 음악 감상을 할 때, 스피커를 통해 작은 볼륨으로 들었을 때는 바이올린 연주밖에 들리지 않았는데 헤드폰을 통해 큰 볼륨으로 들을 때에는 트라이앵글도 연주되는 것을 수 있다. 이처럼 감각은 우리를 종종 속이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할 수 없는 두 번째 종류의 감각적 의견이 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것, 겨울 외투를 입고 난로가에 앉아 있다는 것, 이 두 손이 그리고 이 몸통이 내 것이라는 것 [18]” 등이다. 이는 나의 육체의 존재에 대한, 혹은 주로 촉각에 의해 생기는 의견이다.²⁾ 이 의견들을 의심할 수 없는 이유는, ‘벌거벗고 있으면서 옷을 입고 있다고 하거나 머리가 진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미치광이의 경우이기 때문이다.[19]

이에 데카르트는 ‘꿈의 논증’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나는 내가 “겨울 외투를 입고 난로가에 앉아[19]” 책을 읽고 있다고 생각하는

- 1) ‘외부대상에 대한, 주로 시·청·후각에 의해 생기는 의견’이라는 것은 데카르트가 사용한 용어는 아니고, 필자의 개인적 해석임을 밝힌다. 여기서 ‘시·청·후각’이라 한 것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다만 첫 번째 종류의 의견들이 갖는 일종의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와 같이 표현하였다. 두 번째 종류의 의견들이 보다 육체에 직접적으로 감각되어 언어지는 것이라면, 첫 번째 종류의 의견들은 상대적 거리가 먼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상대적 거리’라 함은 보편적인 거리측정과 달리 대상과 나의 크기에 따라 상대적으로 매길 수 있는 거리의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이를테면, 인간 A와 인간 B 사이의 1미터보다 인간 A와 개미 C 사이의 1미터의 상대적 거리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 2) ‘나의 육체의 존재에 대한’이라고 한 것은 본문에 달린 이현복의 주해(주해 22번, ‘신체적인 나의 현존’)를 참고한 것이다. ‘주로 촉각에 의해 생기는 의견’은 각주 1의 연장선으로서 필자의 견해이다. 이 역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다만 두 번째 종류의 의견은 신체에 직접적으로 감각되는 경향성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앞의 각주와 함께 살펴보면 오감 중에서 미각이 제외되어 있다. 미각은 촉각처럼 신체에 직접적으로 닿는 경향이 강하지만 두 종류의 의견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판단하기에 어려움을 느껴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감각종류를 기준으로 두 의견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좋은 구분이 아니기 때문일 수 있음은 인정하는 바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기에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데, 사실은 “옷을 입지 않고 침대에 누워[19]” 자고 있는 경우가 있다. 꿈속에서도 나의 육체가 존재하고 촉각을 비롯하여 시·청·후각이 감각되기 때문에, 나의 육체의 현존을 비롯하여 감각적 경험에 근거한 믿음은 어떤 것도 확실성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만약 우리가 꿈을 꾸면서 그것이 현실이 아님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기에 문제가 된다. 너무 생생해서 현실인줄 알았던 꿈의 경험은 이러한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 흔히 우리는 “이게 꿈이야 생시야”라고 하며 불을 꼬집어봄으로써 그것을 구별하려 하는데, 이 때 기준이 되는 불의 통증 역시 꿈의 논증에서 의심의 대상이 되는 감각적 경험(특히 신체적 경험)이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데카르트 스스로도 꿈과 생시를 확실히 구별해 줄 기준이 없다는 데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된다[19]”고 했다.

이렇게 감각경험이라는 원리가 무너진 후에도 여전히 살아남는 믿음들이 있다. 이는 앞의 ‘공상적인’ 믿음들과 대비하여 “더 단순하고 보편적인[20]” 믿음들이며,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외부세계가 가지는 것으로 생각되는 물질적 본성들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다. 내 꿈속에서 내 앞에 있는 난로는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난로를 구성하는 혹은 난로가 갖는 물질적 본성들, 즉 연장의 속성, 형태, 크기, 수 자체는 존재한다. 둘째는 수학적 지식들이다. 내가 깨어있든 잠들어있든 간에 ‘ $2+3=5$ ’라는 것은 의심되지 않는다. 데카르트는 이로부터 학문을 두 종류로 분류한다. 하나는 “자연학, 천문학, 의학” 등 복합적인 것을 다루는 학문들이고, 다른 하나는 대수학, 기하학 등 단순한 것을 다루는 학문들이다. 이러한 두 가지 믿음들은, 감각경험의 원리에 기초한 앞의 믿음들과 달리 사유와 직관의 원리에 기초한 믿음들이다. 그런데 이는 ‘유능하고 교활한 악령이 우리의 사유와 직관이 잘못되도록 할 수 있다’는 악령의 가정을 통해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해서 제1성찰은 그동안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들이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된다. 그런데 악령의 가정 후에도 살아남는 믿음, 즉 꿈의 논증 이후에도 살아남는 세 번째 믿음이 제2성찰에서 제시된다. 바로 사유하는 나의 존재에 대한 믿음

이다. 악령에 의해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존재로서 내가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 없다. 이것이 데카르트가 찾아낸 '최초의 토대'이며, 그는 그동안 회의를 통해 무너진 것들을 이로부터 다시 세워나간다. 그런데 감각경험의 원리를 무너뜨린 꿈의 논증은 꿈과 생시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논증이다. 데카르트는 코기토를 통해 회의주의를 벗어나는데, 제6성찰의 마지막에서 꿈의 논증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한다.

Ⅲ. 꿈의 논증으로부터의 탈출

1. 데카르트의 탈출시도

데카르트가 제시하는 꿈과 생시의 구분기준은 '정합성'이다. 데카르트가 말하는 정합성이란 “기억에 의해 <나의> 다른 모든 삶의 활동과 결부될 수 있<음>[89]”을 의미한다. 이때 어떤 사건이 정합적인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감각, 기억, 오성이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결과를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데카르트가 제3성찰에서 증명한 바에 따라 신은 기만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실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의 감각경험과, 기억, 오성을 통해 검토해 보았을 때 그동안의 나의 다른 모든 삶의 활동,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내 생애와 결합되어도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꿈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내가 깨어있을 때 꿈에서처럼 비정합적인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환영이라고 판단해도 무방하며, 정합성 검토에서 통과되는 것들의 진리성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데카르트의 설명이다.

2. 데카르트의 탈출시도에 대한 평가

데카르트가 제시한 ‘정합성’ 기준은 ‘꿈의 논증’의 강력한 회의력에서 탈출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꿈의 논증’이 문제가 되는 것은, 꿈과 현실을 구분할 수 있는 확고한 기준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감각경험에 의한 믿음들은 모두 믿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감각경험이라는 원리는 우리가 갖는 의견들 중 대다수가 의존하는 원리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적 믿음의 기반이 무너지고 회의주의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꿈과 현실을 구분하는 기준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에 대해 데카르트가 제시한 것이 ‘정합성’이다. 하지만 꿈은 정합적이지 못하고 현실은 정합적이라는 기준은 둘을 구분하기에 느슨한 기준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두 단계를 통해 논증할 것이다. 첫째로, 꿈을 꾸는 동안 꿈과 현실을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이며, 둘째로, 그 이유는 예외적인 경우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선 정합성이라는 기준으로는 꿈을 꾸는 동안 꿈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다. 우리가 “그 일은 지금 내가 있는 현실과의 정합성을 검토해봤을 때 정합적이지 않기 때문에, 현실이 아니라 꿈이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꿈을 꾸고 있는 동안이 아니라 꿈에서 깬 다음이다. 꿈을 꾸는 동안에는 그 꿈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비정합적이라고 의심하는 경우보다, 우리가 현실에서 새로운 경험들을 받아들이듯이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때때로 우리는 믿고 싶지 않거나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이건 꿈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꿈을 꾸는 동안 그것이 꿈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꿈속에서 아무리 비정합적인 사건들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꿈이고 곧 깨어날 것임을 알고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귀신이 쫓아오는 꿈을 꿀 때 우리는 공포감에 휩싸여 쫓기다가 깨곤 한다.

그렇다면 왜 꼭 꿈을 꾸는 동안에 꿈과 현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지, 현실에서 구분가능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물을 수 있다. 하

지만 꿈을 꾸는 동안 우리가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상황이 꿈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만약 지금 이 상황이 사실은 꿈이더라도 우리는 어차피 그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이 안에서 나름의 정합성을 받아들이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꿈을 꾸는 동안 꿈과 현실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하는 정합성은 '꿈의 논증'의 탈출 근거로서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그렇다면 다음단계로 넘어와서, '정합성'이 이처럼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예외적인 경우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합성검토는 '꿈은 비정합적이고, 현실은 정합적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표로 나타내 볼 수 있다.

	현실	꿈
정합적	현실은 정합적이다.	A
비정합적	B	꿈은 비정합적이다.

이 때 '현실/꿈', '정합적/비정합적'이라는 범주들의 가능한 결합을 모두 생각해보면, 'A = 정합적인 꿈'과 'B = 비정합적인 현실'이라는 경우가 생각되어질 수 있다. 이들은 '정합적인 현실과 비정합적인 꿈'이라는 전제에서 보면 예외적인 경우인데, 문제는 이들이 단순히 생각되어질 수 있는 가능결합인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결합이라는 점에 있다.

우선 정합적인 꿈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는 그 자체로 매우 정합적이어서 의심하기 어려운 꿈이다. 매트릭스나 수조 속의 뇌가 이러한 사례이다. 실재의 나는 뇌에 어떤 프로그램이 연결된 채로 캡슐 안에 갇혀 있는데, 내가 느끼는 나는 매우 정합적인 세계에 살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현실에서 이러한 경우는 흔치 않다. 우리의 경험상 꿈은 많은 경우 비정합적이다. 하지만 일단 꿈의 논증을 시작한 이상, 또한 데카르트가 말한 것처럼 조금이라도 의심 가능한 것은 의심하기로 한 이상,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만약 매우 정합적인 꿈이 가능하다면, 정합성은 꿈과 현실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다음으로 비정합적인 현실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는 이른바 ‘기적’의 경우가 될 수 있다. 데카르트도 비정합적인 현실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다. 그는 “갑자기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고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89]”, 즉 정합성에 어긋나는 사람은 환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우리는 종종 불치병환자들이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게 완치되는 경우를 본다. 혹은 소위 말하는 ‘불가사의(不可思議)한’ 혹은 ‘미스터리(mystery)한’ 사건들—역사적으로 불가사의한 것으로 여겨진 사건들이 존재했고, 아직까지 설명이 불가능한 것들도 있다—을 보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다수의 사람들에게 의해 동시에 관측되거나 경험되는 ‘기적’이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집단 전체가 동시에 같은 환영을 보고 같은 꿈을 꾸었다고 하기 힘들다. 그 보다는, 우리의 기억과 감각, 오성에 의해 생각해보았을 때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온 세계와 정합적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가능한 설명일 것이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박이 있을 수 있다. 이성이나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라 함은 “아직”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못한 것 혹은 확률적으로 매우 가능성이 희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정말로 설명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인간의 인식능력이 갖는 한계로 인해 우리에게 정합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것일 뿐 실제로 우리 삶과 비정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의 무지가 모두 해소되고 나면,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정합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비정합적인 현실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박은 ‘정합성’기준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만약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의 ‘비정합성’이 우리의 무지에 의해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 사실은 정합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동일한 이유로, 우리가 꿈을 비정합적이게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무지에 의해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 사실은 꿈도 정합적인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꿈속에서 우리가 비정합적 요소라고 지적

하는 것들은 다만 ‘아직’ 그 정합성을 인간이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지 사실은 정합적인 것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정합성’을 기준으로 꿈과 현실을 구분하여 꿈의 논증으로부터 벗어나려한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IV. 나가며

이상으로 데카르트의 ‘꿈의 논증’과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데카르트의 시도를 살펴보았다. 데카르트의 ‘꿈의 논증’은 불변하고 확고한 학문을 세우기 위해 원리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감각경험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논변이었다. 우리가 감각에 의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의견들은 꿈의 가정 하에서 믿을 수 없기에 이는 감각경험의 원리를 의심하는데 매우 성공적인 논변이다. 이어서 더 보편적이고 단순한 의견들과 수학적 의견들까지 의심한 데카르트는, 마침내 ‘생각하고 있는 나의 존재’라는 최초의 토대를 발견하고 이로부터 다시 세계를 정립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제시했던 ‘꿈의 논증’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으로 ‘정합성’을 든다. 그런데 ‘정합성’은 꿈과 현실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되지 못하여 이 탈출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이 글에서 보이고자 한 논증이다.

이처럼 데카르트는 ‘꿈의 논증’으로부터의 탈출에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은 데카르트의 능력 부족이나 실수로 인해 잘못된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은 아닌듯하다.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오히려, ‘꿈의 논증’이 가지는 파급력 자체가 매우 크고 강력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식 및 의견의 많은 부분은 감각경험으로부터 온다. 특히 자연과학의 경우 감각경험과 관찰이 학문의 토대를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그 원리 자체가 무너짐으로써 우리의 지식체계와 학문 전체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었다. 어쩌면 꿈의 논증으로부터의 탈출이 이렇게도 어려운 것은, 결국 꿈과 현실의 구분 기준은 감각경험의 원리에 기반한 지식들인데 그

마저도 꿈의 논증에 의해 완벽하게 허물어졌기 때문일지 모른다. 이처럼 ‘꿈의 논증’은 그 자체로는 매우 탁월한 논증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파급력으로부터 벗어날 탈출구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일 것이다.

참고문헌

1차 문헌

데카르트, R., 이현복 옮김, 『성찰』, 서울 : 문예출판사, 1997.